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4 주차 (15:1~17)

(2015년 9월 20일 - 2015년 9월 26일)

(제3권 35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9 월 20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5:1~8)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Ε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ὁ γεωργός ἐστιν.)
- (2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πᾶν κλῆ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 (αἶρει αὐτ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καὶ πᾶν τὸ καρπὸν φέρον)
그가 그것을 깨끗케 하신다 (καθαίρει αὐτ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 (3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ἤδη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 (διὰ τὸν λόγον ὃν λελάληκα ὑμῖν·)
- (4절) 내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καθὼς ἐν ὑμῖν.)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καθὼς τὸ κλῆ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ἄφ' ἑαυτοῦ)
만약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μένη ἐν τῇ ἀμπέλῳ),
너희도 그러하니라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ὑμεῖς τὰ κλήματα.)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ὁ μένων ἐν ἐμοὶ καθὼς ἐν αὐτῷ οὕτως φέρει καρπὸν πολύν.)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χωρὶς ἐμοῦ οὐ δύνασθε ποιεῖν οὐδέν.)

- (6절) 만약 아무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ἐὰν μή τις μένη ἐν ἐμοί,
그가지와 같이 밖으로 버려져 (ἐβλήθη ἔξω ὡς τὸ κλήμα)
그것이 마르게 되고 (καὶ ἐξηράνθη)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καὶ συνάγουσιν αὐτὰ)
불 속으로 던져 불사른다 (καὶ εἰς τὸ πῦρ βάλουσιν καὶ καίεται.)
- (7절)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εἴαν μείνητε ἐν ἐμοί καὶ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ἐν ὑμῖν μείνη.)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그것을 구하라(ὁ εἰς θέλητε αἰτήσασθε.)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καὶ γενήσεται ὑμῖν.)
- (8절) 그 안에서 [그에 의해] 나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ἐδοξάσθη ὁ πατήρ μου.)
그 결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었다
(ἵνα καρπὸν πολλὸν φέριτε καὶ γένησθε ἐμοὶ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상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제자들을 겁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14 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를 떠나자고 제안한 것을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앞서 유월절 만찬장을 떠나 어디론가 장소를 옮기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사(15:1~16:33)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 고별사와 17 장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끝으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따라서 이 고별사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운명의 시간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두 장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1 절은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에고 에이미’(Εγώ εἰμι)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앞서 하신 선포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예수님은 주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단이요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희생시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죄로 인한 법적 사형이 면제되는 ‘역사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궁극적 구원’을 모두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 A1: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πᾶν κλῆ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B1: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αἶρει αὐτό),
A2: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καὶ πᾶν τὸ καρπὸν φέρον)
B2: 그가 그것을 깨끗케 하신다(καθαίρει αὐτό)
C: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이 구절은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한글 성경에 ‘제해 버리시고’라고 번역된 ‘아이로’(αἶρει)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제거하다, 잘라 버리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많은 경우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나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39 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³⁷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³⁸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³⁹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7-39).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건 맞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수 많은 교인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경고하고자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 의해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문법적으로 위 문장에서 C로 표시된 부분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히나 카르폰 프레이오나 페레)이라는 구절이 단지 B2에만 걸리는지, 아니면 B1, B2 둘 다에 걸리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이로를 ‘제거하다’로 번역한 의도는 C를 B2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이나 당시 문법적인 수사 기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구절은 B1, B2 모두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밑으로 쳐져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지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가지는 스스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주고 가지를 보살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는 포도나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실하지 못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가지는 농부의 보살핌과 나무의 뿌리로부터 받는 영양 공급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기본 조건은 단 하나, 바로 나무 기둥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기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온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인 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로’ (αἶρω)는 요한복음에 26번이나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명백히 ‘들어 올리다, 들어 옮기다’ 등의 의미로 쓰인 부분은 20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제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들다, 들어서 치우다’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완전히 제거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은 11장 48절 단 한 곳 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들어 올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엄밀히 말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면 저절로 화가 나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이 모든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물론 자신의 노력을 통해 점점 더 도덕적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무력함을 더 뼈저리게 느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기란 불가능하기에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것을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요. 당신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Ε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ὁ γεωργός ἐστιν.)
- (2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πάν κλή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 (αἶρει αὐτ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καὶ πᾶν τὸ καρπὸν φέρον)
그가 그것을 깨끗케 하신다 (καθαίρει αὐτ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 (3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ἤδη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 (διὰ τὸν λόγον ὃν λελάληκα ὑμῖν·)
- (4절) 내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καὶ γὼ ἐν ὑμῖν.)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καθὼς τὸ κλή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ἄφ' ἑαυτοῦ)
만약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μένη ἐν τῇ ἄμπελῳ),
너희도 그러하니라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ὑμεῖς τὰ κλήματα.)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ὁ μένων ἐν ἐμοὶ καὶ γὼ ἐν αὐτῷ οὕτως φέρει καρπὸν πολύν.)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χωρὶς ἐμοῦ οὐ δύνασθε ποιεῖν οὐδέν.)

- (6절) 만약 아무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ἐὰν μή τις μένη ἐν ἐμοί,
 그가지와 같이 밖으로 버려져 (ἐβλήθη ἔξω ὡς τὸ κλήμα)
 그것이 마르게 되고 (καὶ ἐξηράνθη)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καὶ συνάγουσιν αὐτὰ)
 불 속으로 던져 불사른다 (καὶ εἰς τὸ πῦρ βάλουσιν καὶ καίεται.)
- (7절)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ἐὰν μείνητε ἐν ἐμοί καὶ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ἐν ὑμῖν μείνη.)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그것을 구하라(ὁ ἐὼν θέλητε αἰτήσασθε.)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καὶ γενήσεται ὑμῖν.)
- (8절) 그 안에서 [그에 의해] 나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ἐδοξάσθη ὁ πατήρ μου.)
 그 결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었다
 (ἵνα καρπὸν πολλὸν φέριτε καὶ γένησθε ἐμοὶ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제자들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다”는 선언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의 당시의 삶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들이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깨끗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깨끗함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어기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편잔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안식일에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 안식일 논쟁을 촉발시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는 자기들 중 누가 더 큰가 논쟁이 붙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예전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무기력하게 고기나 잡고 있었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끗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안식일을 범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을 추구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도, 그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끗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깨끗함이란 인간들이 정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일방적인 선언, 곧 그리스도로 옷입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들은 이미 깨끗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달라는 베드로에게 이미 온 몸을 목욕한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발마저도 예수님이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아무 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11).

헬라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καὶ ταῦτά τινες ἦτε·)
그러나 당신들은 씻겨졌습니다 (ἀλλὰ ἀπελούσασθε,)
그러나 당신들은 성스럽게 되었습니다 (ἀλλὰ ἡγιάσθητε,)
그러나 당신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ἀλλὰ ἐδικαιώθητ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ἐν τῷ ὀνόματι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καὶ ἐν τῷ πνεύματι τοῦ θεοῦ ἡμῶν.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개의 수동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씻겨지는 과정, 성스럽게 되는 과정,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믿는 자들이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깨끗하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지켜내어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떠한 요구도하신 적이 없으며, 오직 말씀이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한 자라는 것을 입증해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들은 의롭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태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존한

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자신이 의롭고 깨끗하다고 여기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 겁니다.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깨끗해졌다는 약속을 받았나요? 아니면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머물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Ε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ὁ γεωργός ἐστιν.)
- (2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πᾶν κλῆ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 (αἶρει αὐτ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καὶ πᾶν τὸ καρπὸν φέρον)
그가 그것을 깨끗케 하신다 (καθαίρει αὐτ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 (3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ἤδη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 (διὰ τὸν λόγον ὃν λελάληκα ὑμῖν·)
- (4절) 내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καθὼς ἐν ὑμῖν.)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καθὼς τὸ κλῆ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ἄφ' ἑαυτοῦ)
만약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μένη ἐν τῇ ἄμπελῳ.)
너희도 그러하니라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ὑμεῖς τὰ κλήματα.)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ὁ μένων ἐν ἐμοὶ καθὼς ἐν αὐτῷ οὕτως φέρει καρπὸν πολύν.)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χωρὶς ἐμοῦ οὐ δύνασθε ποιεῖν οὐδέν.)

- (6절) 만약 아무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ἐὰν μή τις μένη ἐν ἐμοί,
그가지와 같이 밖으로 버려져 (ἐβλήθη ἔξω ὡς τὸ κλήμα)
그것이 마르게 되고 (καὶ ἐξηράνθη)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καὶ συνάγουσιν αὐτὰ)
불 속으로 던져 불사른다 (καὶ εἰς τὸ πῦρ βάλλουσιν καὶ καίεται.)
- (7절)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ἐὰν μείνητε ἐν ἐμοί καὶ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ἐν ὑμῖν μείνη.)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그것을 구하라(ὁ ἐὼν θέλητε αἰτήσασθε.)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καὶ γενήσεται ὑμῖν.)
- (8절) 그 안에서 [그에 의해] 나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ἐδοξάσθη ὁ πατήρ μου.)
그 결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었다
(ἵνα καρπὸν πολλὸν φέριτε καὶ γένησθε ἐμοὶ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만약 포도 나무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만약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단어의 배열과 표현을 고려하여 해석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절은 ‘명령’과 ‘서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καὶ γὰρ ἐν ὑμῖ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명령자의 의지를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두는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명령대로 수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두시는 것입니다. 이 때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운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일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의 헬라어를 보면 두 번째 문장에 ‘머물리라’라는 의미의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의 의지로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성령님이 먼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고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에게서 내쳐지지 않으려고 인간들이 애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 머무르도록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3-8).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성취되는데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오직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술부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후 그 명령의 효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 A: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καθὼς τὸ κλή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ἄφ' ἑαυτοῦ)
- B: 만약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μένη ἐν τῇ ἀμπέλῳ.)
- C: 너희도 그리하니라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 B: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서술부의 첫 부분(A)은 ‘동급 비교’입니다. 즉,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 낼 수 있는 것도 없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로부터 분리된 가지는 말라 죽을 뿐입니다. 문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지 말지 여부도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오직 농부가 결정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의 가정을 합니다 (B). 둘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므로 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가정법으로 예안(ἐὰ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능성이란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예안’은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0%~0%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서서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벗어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것을 온전히 깨달으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는 너희들이 애써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함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벗어 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밖에 없는 자,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없는 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고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조건이 충족된 자들이며 따라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다른 이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고 당신에게 죄지은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향해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열매가 있음을 확인하는 길이니깐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아전인수와 역지사지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1~8)

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Ε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ἡ ἀληθινή)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καὶ ὁ πατήρ μου ὁ γεωργός ἐστιν.)
- (2절)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πάν κλήμα ἐν ἐμοὶ μὴ φέρον καρπὸν)
그가 그것을 들어 올린다 (αἶρει αὐτό),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καὶ πᾶν τὸ καρπὸν φέρον)
그가 그것을 깨끗케 하신다 (καθαίρει αὐτ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ἵνα καρπὸν πλείονα φέρῃ.)
- (3절)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ἤδη ὑμεῖς καθαροὶ ἐστέ)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던 그 말들을 통해 (διὰ τὸν λόγον ὃν λελάληκα ὑμῖν·)
- (4절) 내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καὶ ἐγὼ ἐν ὑμῖν.)
가지가 스스로 능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같이
(καθὼς τὸ κλήμα οὐ δύναται καρπὸν φέρειν ἄφ' ἑαυτοῦ)
만약 포도나무에 머물지 않으면 (ἐὰν μὴ μένη ἐν τῇ ἄμπελῳ),
너희도 그러하니라 (οὕτως οὐδὲ ὑμεῖς)
만약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ἐὰν μὴ ἐν ἐμοὶ μένητε.)
-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ἐγώ εἰμι ἡ ἄμπελος, ὑμεῖς τὰ κλήματα.)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ὁ μένων ἐν ἐμοὶ καὶ ἐγὼ ἐν αὐτῷ οὕτως φέρει καρπὸν πολύν.)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ὅτι χωρὶς ἐμοῦ οὐ δύνασθε ποιεῖν οὐδέν.)

- (6절) 만약 아무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ἐὰν μή τις μένη ἐν ἐμοί,
그가지와 같이 밖으로 버려져 (ἐβλήθη ἔξω ὡς τὸ κλήμα)
그것이 마르게 되고 (καὶ ἐξηράνθη)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καὶ συνάγουσιν αὐτὰ)
불속으로 던져 불사른다 (καὶ εἰς τὸ πῦρ βάλλουσιν καὶ καίεται.)
- (7절)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εἰ μὲν μένητε ἐν ἐμοί καὶ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ἐν ὑμῖν μένη,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그것을 구하라(ὁ εἰς τὸ θέλητε αἰτήσασθε.)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 (καὶ γενήσεται ὑμῖν.)
- (8절) 그 안에서 [그에 의해] 나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 (ἐν τούτῳ ἐδοξάσθη ὁ πατήρ μου.)
그 결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었다
(ἵνα καρπὸν πολλὸν φέριτε καὶ γένησθε ἐμοὶ μαθητα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5 절-6 절을 읽으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아무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가지와 같이 밖으로 버려져, 그것이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불속으로 던져 불사른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 한 곳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은 예수님 안이고, 다른 한 곳은 예수님 밖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라 하면 대개의 경우 많은 이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떠올립니다. 과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그 열매일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지고 말라져 불태워질 운명이 되는 걸까요?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는 내가 가진 선입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덕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도덕을 열매로 생각합니다. 선행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제일의 가치로 여길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여길 것이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병 고치는 기적만 읽으면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선입관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전인수라는 한자성어 아시죠? ‘제 눈에 물대기’란 말이죠. 자기 눈뿐 아니라 남의 눈도 모두 말랐는데 오로지 자기 눈에만 물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빗대는 말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억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다 해석하려는 경향을 빗대는 말이기도

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5 장은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내 입장이 아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역지사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져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지로 떠돌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야 성경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당시에 제자들이 만나서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했고 실제로 그들은 모두 복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고별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은 삶의 고난이 해소되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예수님이 모함을 받고 수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그들이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소중했다면 그 믿음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입을 굳게 닫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입을 열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선포가 그들에게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핍박당하지도,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에 고난이 있나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는 이유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서 안전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계도를 만들려 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별반 다를 것 없는 도킨개킨이기 때문은 아닌지요?

7절과 8절을 읽으십시오. 성경 원문에서 7절과 8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장을 문법에 맞게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2: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주절 1: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명령)

주절 2: 그것이 너희에게 될 것이다(미래 서술)

주절 3: 그것에 의해 나의 아버지가 영광받게 될 것이다(미래 서술)

결과 1: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현재)

결과 2: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과거)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과거형),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현재형). 이제 이들에게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만약 원한다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제자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지양하고 역지사지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 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지요.

“¹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¹⁹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²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6:18-20).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당연히 억울하게 잡혀 있는 그 감옥에서 속히 풀려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고자 했으며 그 때문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혹시 아직도 아전인수식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문해석하기

-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έν με ὁ πατήρ,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καὶ γὼ ὑμᾶς ἠγάπησα·)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τῇ ἐμῇ.)
- (10절)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τηρήσητε,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μενεῖ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μου.)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τὰς ἐντολά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ηρήρηκα καὶ μένω αὐτοῦ ἐν τῇ ἀγάπῃ.)
-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ἵνα ἡ χαρὰ ἡ ἐμὴ ἐν ὑμῖν ἦ καὶ ἡ χαρὰ ὑμῶν πληρωθῇ.)
-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ῇ)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ῇ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Ὑμε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έ)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 (15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οῖς δὲ εἶρηκα φίλους.)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γγώρισα ὑμῖν.)
- (16절)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οὐχ ὑμεῖς με ἐξελέξασθε.)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다 (ἀλλ' ἐγὼ ἐξελέξαμην ὑμᾶς καὶ ἔθηκα ὑμᾶς)
 너희가 떠나 열매를 맺도록 (ἵνα ὑμεῖς ὑπάγητε καὶ καρπὸν φέριτε)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너희 안에] 머물도록 (καὶ ὁ καρπὸς ὑμῶν μῆνη.)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께] 구하면
 (ἵνα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δοῖ ὑμῖν.)
-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ταῦτα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9-10 절을 읽으십시오. 9 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와는 반대 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 장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계셨으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1).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가 운데 거한 것이지요 (1:14).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 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까지도 포기하는 모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수난을 당하시기 전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26:39) 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 27:46). 하지만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모진 사랑 때문이다!”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방식은 그토록 모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⁶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⁷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⁹ 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¹¹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5-11).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멩에를 다시 지게 하는 것이며, 끊은 사슬로 자신을 다시 얽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벗어나면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칼날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 죄의 사슬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로우신가요?

10 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keep),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왔고,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범위를 벗어나신 적이 한번도 없으며 언제나 그 계명 안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도 자의로 하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권한 내에서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차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 얽매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곧 새로운 율법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사랑에 머물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은혜로 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해 힘들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 열등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라는 자신이 세운 율법적 기준에서 기인하는 감정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사람도 이미 마음에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유를 앗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라는 것은 그 자유를 앗아가는 율법으로부터 진정으로 상대방과 자신을 놓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폐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율법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남을 향한 사랑도 공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나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8).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기쁨의 역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문해석하기

-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έν με ὁ πατήρ,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καὶ ἐγὼ ὑμᾶς ἠγάπησα·)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τῇ ἐμῇ.)
- (10절)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τηρήσητε,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μενεῖ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μου.)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τὰς ἐντολά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ηρήρηκα καὶ μένω αὐτοῦ ἐν τῇ ἀγάπῃ.)
-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ἵνα ἡ χαρὰ ἡ ἐμὴ ἐν ὑμῖν ᾗ καὶ ἡ χαρὰ ὑμῶν πληρωθῇ.)
-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ῇ)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ῇ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Ὑμε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έ)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 (15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οῖς δὲ εἶρηκα φίλους,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ἐγνώρισα ὑμῖν.)
 (16절)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οὐχ ὑμεῖς με ἐξελέξασθε,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다 (ἀλλ' ἐγὼ ἐξελέξαμην ὑμᾶς καὶ ἔθηκα ὑμᾶς)
 너희가 떠나 열매를 맺도록 (ἵνα ὑμεῖς ὑπάγητε καὶ καρπὸν φέριτε)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너희 안에] 머물도록 (καὶ ὁ καρπὸς ὑμῶν μένη)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께] 구하면
 (ἵνα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δοῦν ὑμῖν.)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ταῦτα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1 절을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계속 말해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라레오’(λαλέω)의 일인칭 서술형 완료형인 ‘레라레카’(λελάληκα)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였을까요? 여기에 지시대명사 ‘타우타’(ταῦτα)가 쓰인 걸로 보아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물라는 것,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며,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²⁵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²⁶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²⁷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²⁸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²⁹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³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 3:25-30).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사역이 급격히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를 떠나 예수님께로 갔고,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세례를 주는 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 바로 위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세례 요한은 섭섭해 하기는커녕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나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3:29)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쇠하고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 것입니다. 요한의 진정한 기쁨은 자신의 사역이 흥왕해지는 데에 있지 않았습니. 오히려 자신이 쇠하고 자신이 더 이상 이름없는 존재로 사라지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것을 보며 그는 만족하고 기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또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로 하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후 8:1-2).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기쁨을 매우 열렬적으로 설명합니다. ‘환란과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극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믿는 사람들의 풍요입니다. 실제로는 힘든 상황이고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상황인데도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힘겨우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인해 자신감이 상실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에 비친 자신의 처지로 인해 심한 열등감에 휩싸일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안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를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기쁨’을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42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43 이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4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4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4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47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4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4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²¹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²²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빌1:12-22).

사도 바울은 자심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음이 폭넓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도 유익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샘솟는 기쁨이 마음 안에 있어 늘 기쁨 가운데 살고 있으신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5:9~17)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원문해석하기

- (9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ἠγάπησέν με ὁ πατήρ,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καὶ ἐγὼ ὑμᾶς ἠγάπησα·)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 (μείνα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τῇ ἐμῇ.)
- (10절) 만약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ἐὰν τὰς ἐντολάς μου τηρήσητε,
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μενεῖτε ἐν τῇ ἀγάπῃ μου.)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오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머문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τὰς ἐντολάς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τηρήρηκα καὶ μένω αὐτοῦ ἐν τῇ ἀγάπῃ.)
-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왔다 (Ταῦτα λελάληκα ὑμῖν)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ἵνα ἡ χαρὰ ἡ ἐμὴ ἐν ὑμῖν ἦ καὶ ἡ χαρὰ ὑμῶν πληρωθῇ.)
-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ἡ ἐμῇ)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ῇ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 (14절)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Ὑμεῖς φίλοι μου ἐστέ)
만약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면
(ἐὰν ποιῆτε ἃ ἐγὼ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 (15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않겠다 (οὐκέτι λέγω ὑμᾶς δούλους,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ὅτι ὁ δούλος οὐκ οἶδεν τί ποιεῖ αὐτοῦ ὁ κύριος·)

-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러 왔다 (ὁμοῖς δὲ εἶρηκα φίλους,
 왜냐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
 (ὅτι πάντα ἃ ἤκουσα παρὰ τοῦ πατρός μου ἐγνώρισα ὑμῖν.)
- (16절)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οὐχ ὑμεῖς με ἐξελέξασθε,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다 (ἀλλ' ἐγὼ ἐξελέξαμην ὑμᾶς καὶ ἔθηκα ὑμᾶς)
 너희가 떠나 열매를 맺도록 (ἵνα ὑμεῖς ὑπάγητε καὶ καρπὸν φέριτε)
 그리고 너희의 열매가 [너희 안에] 머물도록 (καὶ ὁ καρπὸς ὑμῶν μῆνη)
 그 결과 너희들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께] 구하면
 (ἵνα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τὸν πατέρα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그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δοῦ ὑμῖν.)
-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한다 (ταῦτα ἐντέλλομαι ὑμῖν,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13 절을 읽으십시오. 이 두 구절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 A: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Αὕτη ἐστὶν ἡ ἐντολὴ ἣ ἐμή)
 B: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ἵνα ἀγαπᾶτε ἀλλήλους καθὼς ἠγάπησα ὑμᾶς.)
- A: 이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것은 없다 (μείζονα ταύτης ἀγάπην οὐδεὶς ἔχει.)
 B: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ἵνα τις τὴν ψυχὴν αὐτοῦ θῆ ὑπὲρ τῶν φίλων αὐτοῦ.)

위 두 구절은 두개의 주절과 결과절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히나’ (ἵνα) 가 이끄는 절은 목적 또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히나’ (ἵνα) 절 앞에 쉼표(,)가 있으면 대개의 경우 결과절로 해석합니다. 12 절과 13 절은 모두 쉼표 뒤에 ‘히나’ (ἵνα) 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과절로 해석하였습니다. 위 두 개의 구절을 병행구조로 놓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위치시킨다 (내어 놓는다)’

먼저 주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말로 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이유로 사랑이 곧 계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계명은 사랑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의 근원이 되는 어떤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32 주차 주일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계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란 인간이 지켜내야 할 명령이라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절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계명을 가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근원이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내면에 모시면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에 그 사랑을 발동시켜 흐르게 할 뭔가가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부여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 결과절이 ‘서로 사랑한다’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닌 추상적인 설명에 해당합니다. 반면 두 번째 결과절은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이가 그의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위치시킨다.” 도대체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인이나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있었었습니다. 여기서 ‘내어 놓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티세미’(τίθημι)인데 이 단어는 ‘위치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가 서 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의 영혼을 대신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계셨던 자리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로 내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새로운 계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⁷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⁸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⁹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¹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¹¹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롬 5:6-11).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실 연약할 때가 아니라 무력할 때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그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던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계명입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별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지! 그래서 나에게도 사랑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지!’라며 각오를 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으리라는 무력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테지요. 왜냐하면 그런 진정한 사랑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구현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그가 우리를 도와 그 사랑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은 커녕 저주가 흘러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제발 내 눈 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 들 수도 있을 테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저주해 마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면 점점 더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